

국가하천 승격 무산 천미천 정비 ‘막막’

범람 해소 위해 제주도·서귀포시 480억원 들여 정비중
하천 정비 국가 균특사업서 지방 이양파라 지방비 부담

제주시 조천읍과 구좌읍의 경계인 한라산국립공원내 돌오름에서 발원해 서귀포시 표선면 바닷가로 흐르는 천미천의 국가하천 승격 무산에 이어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를 통해 재원이 확보됐던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며 앞으로 하천정비 사업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국가하천이 없는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도는 집중호우나 태풍 때 잦은 범람으로 마을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는 천미천의 홍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2009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난

해 5월 발표한 15개 국가하천 승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하천으로 남게 됐다.

총연장 26.78km, 유역면적 125.29㎢인 천미천은 2007년 태풍 '나리'와 2012년 태풍 '산바' 때 범람으로 수십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람이 잦은 곳이다. 특히 최근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제주 산간과 남부를 중심으로 자주 내리면서 천미천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건천'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국가하천 승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가하천이 되면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예산이 전액 국비로 투입된다. 하지만 지방하천 정비는 그동안 국

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투입돼 왔다. 또 국가하천은 150~200년의 강우빈도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되지만 지방하천은 그보다 낮은 500~100년 빈도로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하천법상 국가하천 지정 기준은 유역면적 합계가 50~200㎢인 하천 가운데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내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국립공원이나 문화재보호구역이어서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과 국가민속문화재인 성읍민속마을을 통과하는 하천이라는 점을 들어 국가하천으로의 승격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천미천 정비사업은 제주시가 215억원을 들여 2018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호안정비 5.7km와 3곳에 교량시설을 추진중이다. 서귀포시도 총 사업비 265억원을 들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8km 구간에 대한 호안정비와 3곳에 교량을 가설해나갈 계획이다.

게다가 올해 정부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균특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이양하면서 3년 동안은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보전 방침을 밝혔는데, 그 이후에는 제주도의 일반재원을 활용하게 되면서 도의 역점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경우 사업비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천미천의 국가하천 승격은 무산됐지만 환경부가 2018년부터 진행해 올해 마무리된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한 제2차 수문조사 기본계획(2020~2030년) 수립 용역에 천미천을 포함시켜 달라고 강력 요청해 반영됐다"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 현장조사가 이뤄져 하천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한담해안 산책 13일 제주도 한담해안산책로를 찾은 관광객들이 바다를 감상하며 제주의 봄을 만끽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망고 비닐하우스 화재

13일 새벽 서귀포시 신효동 한 망고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35분만에 진화됐다.

불은 이날 새벽 0시45분쯤 시작됐으며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즉시 화재 진화에 나서 1시 21분쯤 모든 불을 껐다.

이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비닐하우스 일부와 온풍기, 과실수 60본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65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배전반 변압기 과부하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화물선 제주항 방파제 충돌

기름 수백t을 실은 화물선이 제주항 방파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9분쯤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하던 제주선적 화물선 A호(6800t급)가 제주도 건입동 제주의항 서방파제 끝단과 부딪혔다.

A호는 바람에 밀리면서 방파제와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호에는 병커C유 286t이 실려 있었지만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되진 않았다. A호는 선수가 급히는 피해를 입었다.

이상민기자

“불법체류 의심 외국인 농친 경찰관 징계 정당”

해당경찰 견책취소소송 패소

제주자치경찰이 적법한 무면허 운전·불법체류 혐의 중국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농친 국가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경위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

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018년 12월 오후 4시50분쯤 제주도 구좌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적발했다는 자치경찰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자치경찰은 해당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국가경찰용 휴대용단말기에 입력했지만 아무런 정보도 검색되지 않아 불법체류도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사당은 A경위가 진술서를 살펴보는 사이 외국인이 도주하면서 발생

했다. 순찰차 조수석에 있던 A경위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수색했지만 도주한 외국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건 이후 동부경찰서장은 A경위가 무면허와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임의동행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A경위는 국가경찰인 자신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지원권이나 업무 감독권이 없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계란속에 또 계란 하나가...

닭 키우는 해안동 주민
“유난히 큰 계란 있어
깨트리니 안에 또 계란”
축산물품질평가원
“엄밀하게는 돌연변이”

제주시 해안동에 사는 양모(68)씨는 집에서 키우는 닭이 낳은 알을 수거하다 유난히 큰 계란을 발견했다.

처음 양씨는 유독 큰 계란을 보고, 쌍란이 들어 있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일반란과 비교해 청란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별난 점이 있었다. 양씨가 집에 가서 바로 해당 계란을 깨트리자 계란안에 노른자 두알이 아닌, 노른자 한알과 작은 계란이 들어있었다.

양씨는 “하나의 계란 속에 노른자 두개가 발견된 경우는 많았지만, 계란 안에 계란이 들어 있는 형태는 몇 년간 닭을 키우면서

처음 봤다”고 놀라워했다.

해당 계란 안에 들어 있던 또 다른 계란은 메추리알 크기로, 껍질은 물론 노른자와 흰자까지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했을까.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계란 속에 작은 계란이 또 들어 있는 형태의 계란은 ‘난중란’ 또는 ‘이중 계란’이라고 불리며 기형란으로 분류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계란 속에 완전한 형태의 계란이 생기는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흔한 현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중 계란은 닭이 알을 만들었지만, 체외로 배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계란을 만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는 “계란 속에 계란이 있는 형태는 엄밀한 의미에서 돌연변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 약사회 사칭 4·3 비방 우편물 수사

국회의원 선거 직전 발송
“공산주의자에 의해 자행”

도내 일부 약사들에게 대한약사회 명의를 사칭한 제주4·3 비방 우편물이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회 명의를 사칭해 우편물을 발송한 성명불상자를 공식선거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문제의 우편물에는 ‘제주4·3사건이 공산주의자에 의해 자행된 것이다’, ‘제주4·3주념일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손글씨로 적힌 A4용지가 들어 있었다. 이 우편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제주도약사회 소속 약사 3명에게 발송됐으며 우편물마다 적힌 글씨체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약사회 측은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고발장에서 “약사회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안이 아닌 민감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소속 회원들이 각자 주관에 따라 판단·결정할 수 있게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해당 우편물 발송 행위는) 지금까지 축적해 온 (약사회)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고 약사회와 회원 간의 신뢰관계에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만드는 등 약사회 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편물이 발송된 시기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해당하고 (우편물 내용) 약사회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꾸며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수훈



황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김 성 혁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분회 초대회장)

일사일오 사사회 회 장 오 정 은 외 회원일동

총재 김경옥	재무총장 전경수	2대회장 양철주	3대회장 현기학	4대회장 강명구
수석부회장 이웅우	부회장 정성택	부회장 김정수	감사 양태석	총무 한석지
재무장행숙	회원 고영남	회원 고윤희	회원 김경희	회원 김행환
회원 문성철	회원 부정훈	회원 이희규	회원 임경란	회원 최기영
회원 허산일	회원 홍성국			



취임

제19대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장



고 정 화
고향의 푸른 기상

우리는 가끔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자문을 하게 됩니다.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향경우회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더 큰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재제주시중엄리향우회
회장 임 용 범 과 회원일동



합격

제9회 변호사 시험



서 하 운

신성여고 졸업, 한양대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로스쿨 졸업
(父 : 서명균(명인플러스의원 외과원장))
(母 : 방인숙(명인플러스의원 내과원장))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명인플러스의원 직원일동